

독도하랑, 100일간의 여정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시오
학 교 명	연주중학교
동아리(팀)명	독도 하랑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저희 동아리 팀명은 '독도하랑'입니다. 순우리말인 '하랑'에서 하는 '높다'라는 뜻(하늘), 랑은 '함께'라는 뜻(~랑~)입니다. "독도와 높이 비상하고, 함께 성장하자"라는 의미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홍성주	3	랩과 노랫말 가사, 노래 코드와 노랫말 멜로디 작곡, 판넬 제작, 아이디어 정리, 자료 조사, ucc작성, 뮤비 제작
2	이규리	3	노랫말 작사, 피아노 멜로디작곡, 노랫말 멜로디 작곡, 자료 조사, 아이디어 정리, 판넬 디자인, 활동보고서와 활동요약서 작성
3	김소아	3	랩 작사, 자료 조사, 아이디어 정리, 뮤비 감독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독도와 함께하고 항상 생각해보자

주제 선정 이유 :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 계속해서 멜로디가 떠오르고 가사를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노래를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꽃샘바람> 속 가사를 통해 독도를 더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독도를 사랑하고 매 순간 생각한다면, 아무리 무대응을 하더라도 '몰라서'의 무대응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의 무대응이 될 것입니다.

○ 활동 기간 : 2018년 5월 4일 ~ 8월 9일

○ 추진 방법 : 함께 구상하고 최대한 주제에 알맞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했으며, 3명 중 한명이 만남을 못 가지더라도 남은 인원끼리 만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상의하였습니다.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 4일	발단식	학교	발단식은 학교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다. 그곳에서 우리의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떨려서 계획을 제대로 설명 못한 것 같다.
5월 8일	노래의 주제와 느낌 정하기	교실	학교가 끝나고 계획의 초반 작업을 하는 날이었다. 노래의 기본적인 틀과 큰 특징들을 많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5월 10일	멜로디 작업	학교 음악실	대중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멜로디에 집중을 해보기로 하고 음악실을 빌려서 멜로디 초안을 생각해냈다.
5월 22일	기사 쓰기	성주네 집	오늘은 기사를 거의 다 쓰기로 한 날이었다. 분위기와 어울리게 잘 지은 노랫말이 모두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든 것 같다.
5월 24일	가사 마무리, 초안 작성	성주네 집	확실히 독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독도는 어떤 기분이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까를 생각하고 표현하려고 했다. 또한, 독도와 관련된 지식을 더 자세히 알게 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6월 2일	멜로디 작업2	학교	학교가 끝나고 남아서 멜로디 라인을 더 보충해보았다. 첫 번째에 했던 멜로디 작업보다 이번이 훨씬 더 수월했다. 시험기간 도중이라서 비교적 간단한 만남을 가졌다.
7월 2일	뮤비 콘티 짜기	공원	노래가 완성된 뒤에 뮤비 콘티를 짜도 가능하지만, 미리미리 짜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콘티를 짜보았다.
7월 3일	가사다듬기, 코러스 부분 멜로디 짜기	성주네 집	처음 가사를 짤 때의 느낌과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가사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로 했다. 랩 가사도 다듬었다. 이미 코드 진행을 해놓았던 상태라 멜로디를 짜기에 간편했다.
7월 7일	멜로디 부분 노래	성주네 집	전에 문제가 있었던 랩 부분과 후렴구를

	완성		보충했다. 걱정 길이를 찾으려고 가사도 더 깨끗하게 다듬어서 멜로디 부분의 노래를 완성하였다.
7월 14일	반주 제작, 캠페인 의논하기	규리네 집	'섬'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피아노 반주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심사숙고 했다. 그리고 캠페인 장소도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의논하였다.
7월 21일	캠페인에서 사용할 판넬 디자인하기, 노래 계정 만들기	카페	캠페인에서 사용할 판넬을 디자인 하였다. 어떤 질문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어느 sns를 사용해야 좋을지 고민하다가 트위터에 우리의 기록을 남기기로 계획하였다.
8월 4일	노래 반주 녹음하기, 노래 녹음하기	규리네 집	열심히 반주를 녹음했다. 피아노 반주와 알맞은 박자를 넣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이 날은 반주도 그렇고 노래를 녹음하는 데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들 고생한 날이었다.
8월 6일	캠페인 하기	강 남 구 청역 주변 공원	강남구청역은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안에서는 하지 못했다. 실외이다 보니 너무 덥고 습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그렇지만, 예상했던 결과여서 허전한 마음보다는 뿌듯한 마음이 더 컸다.
8월 9일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 기록하기	카페	드디어 100일간의 기록 중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감문도 작성해보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은걸 배우고 가는 것 같다.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서식3)	보고서	독도 공모전에 나오게 된 계기부터 독도공모전을 하면서 얻은 생각들과 일반화 계획
2	활동보고서	보고서	독도 체험 활동 소개와 활동 목록들, 그리고

			개개인의 소감까지
3	독도 하랑, 100일간의 여정	파일	100일간 활동하면서 만날때마다 적은 일기 들
4	<꽃샘바람>	동영상 (유튜브)	여러 활동들 중 가장 중심으로 준비한 작 곡/작사 노래를 뮤비와 함께 동영상으로 제 작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생각했던 것의 이상으로 처음해본 노래 작곡/작사가 잘 된 것 같아서 매우 뿌듯했고, 노래가 완성된 이후에 학교 친구들에게도 들려줬더니, '덕분에 독도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해서 만족스럽다.

○ 향후 계획

우리 노래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독도가 완전히 우리 영토라는 것이 인정될 때까지 독도에 대한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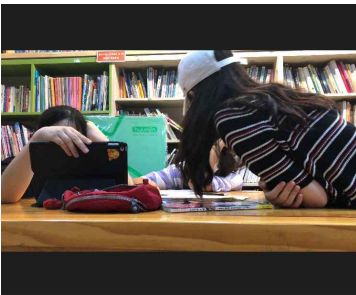
동아리(팀)원	느 낀 점
홍성주	나는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 정말 독도를 자꾸 사랑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줘야 뺏기지 않는 구나를 느꼈다. 또한 왜 우리 땅인지도 알고 있어야,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를 만들 때 더 정직한 정보와 근거를 쓰면 사람들이 더 친근한 방법으로 근거를 공부할 수 있겠구나를 느껴서 열심히 가사에 집중했다. 때로는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듯한 문제들과 부딪혔지만, 팀원들과 함께 천천히 풀어가면서 노래를 완성해냈다. 이 노래를 독도의 시점

	<p>에서 썼는데, 처음으로 독도의 입장에서 이 쓸데없는 신경전을 살펴보았다. 솔직히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너무 일방적으로 일본이 불리한 이 말다툼에서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소속이라고 생각할 테니 그만 신경끄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할 것 같아 그 생각들을 그대로 노래에 넣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이런 의견을 독도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정말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즐기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헛된 허망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과 진심을 담아 작업을 했고, 독도에 관하여 조사를 해보니, 나 또한 독도를 진짜 진지한 태도로 항상 임해야겠구나를 다짐하게 되었다. 이 체험과 활동은 공모전에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 신중하게 다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중점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p>
이규리	<p>독도는 본래 대한민국 땅이었고 그 누구도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독도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했고 우리 땅이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니깐, 적어도 알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독도에 매장된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한 여러 자원들을 탐낸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너무나 뻔뻔한 태도로 자신들의 땅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독도를 그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끊임없이 선진국 일본에 대항하며 독도를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번 독도공모전을 통해 배운 것이다. 더 이상 독도에 대해 아는 것을 꺼려서는 안되고, 미뤄서도 안된다. 황홀한 독도를 가꾸며 최소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과연 우리가 예상한대로 멋진 노래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자신감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반복하여 생각해보니깐 우리는 틀림없이 노래를 만들 수 있더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독도와 우리들이 함께 비상하며 길이 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꾸려나가고 싶다. 이번 활동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한 경험이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독도를 더 사랑하고 알아가야겠다.</p>
김소아	<p>나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독도라는 섬과 그 곳에 얹힌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에 대한 자세한 근거들</p>

이나 일본의 주장 등이 이 일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더 강한 확신을 가졌고 여러 근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독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소중한 곳이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 것이며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곳이다. 풍부한 자원과 여러 동식물들, 아름다운 풍경들이 가득한 곳이다. 이곳을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독도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한다. 이번 기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으며 우리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알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과 근거를 설명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노력이 독도를 지키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번 활동은 정말 의미 있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다.

5. 건의사항

○ 이런 독도지킴이 활동에 좀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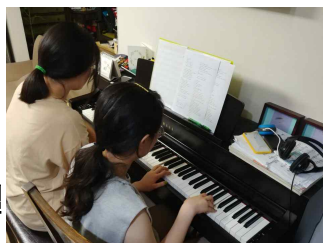
7월 21일



5월 24일



7월 3일



8월 4일



8월 6일